‘한국의 베니스’ 여수 두문마을 ‘오션 갓니발 페스티벌’ 열린다

21~22일 오션 마켓·갓 푸드존·낚시존·포차 등 체험 행사 다채

다가오는 주말, 여수에서 축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한국의 베니스라고 알려진 여수의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두문마을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여수시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여수 두문 베니스 오션 갓니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죽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새롭게 변화한 한국의 베니스 두문마을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간에는 ▲베니스 오션마켓 ▲두문 갓 푸드존 ▲베니스 체험존 ▲낚시존 ▲그림그리기 ▲사진촬영 사생대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야간에는 두문마을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소원배 띄우기 ▲심화영화 감상 ▲베니스 오션포차 등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캠핑 여행객을 위한 차박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죽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제용국 추진위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두문마을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정성껏 준비했으니 주말 저녁 가족, 친구와 함께 오셔서 행복한 추억 가득 안고 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지역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올해 추가된 3개소(돌산읍 작금항, 금천항, 화정면 화산항)를 포함해 현재까지 13개항이 선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죽포항, 안도항, 월호항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10개 항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어촌마을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구례수목원 전시관 여름꽃 향기 가득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운영

구례군 산동면에 소재한 구례수목원 전시관에 여름꽃이 만발했다.

홍가시나무와 장미터널을 지나 온실로 들어가면 폭포수 사이로 베고니아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넓게 어우러진 핑크빛 부겐베리아는 한아름 두팔 벌려 드레스를 입은 듯이 펼쳐져 있다.

여기에 샛노란 천사의 나팔은 수줍은 듯 은은하게 향기를 자아내며 모습을 드러낸다.

강아지풀을 닮은 붉은여우꼬리풀은 ‘동심’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어 한층 더 감성을 돋게 해준다.

한편 구례수목원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 산동면 구례수목원에 여름꽃이 만발했다. 온실 속 폭포수 사이에 핀 베고니아 모습. 〈구례군 제공〉

“고흥군 팸투어 참여로 귀농·귀촌 확신 생겨요”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인기

고흥군이 추진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팸투어’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등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청정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고흥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귀농귀촌 선도농가를 방문해 귀농귀촌에 대한 알짜 정보를 얻고 생산에서 제조·판매까지 6차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귀농귀촌 선도농가 시설하우스를 찾은 팸투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팸투어 참가자들은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선도농업인 등 인적네트워크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으며 귀농귀촌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런 팸투어를 계기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 의향 단계에서 이주까지 안정적으로 고흥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팸투어 선호도가 높아 올해 9월 중에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어르신, 키오스크 주문 어렵지 않아요

곡성군 ‘디지털 체험존’ 운영…정보화기기 사용법 1대 1 맞춤교육

곡성군이 곡성읍 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최신 정보화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스피커 사용법을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 실생활에서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체험존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활용도가 높은 필수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음식 및 커피 주문, 기차 및 영화 예약, 무인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사진〉

디지털 체험존에는 AI 스피커도 체험할 수 있다. AI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 재생을 넘어 시간 라디오 및 뉴스 재생, 날씨 검색, 번역, 음성 검색, 일정 관리, 타이머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스마트 홈 구축과 가정 내 IoT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존에서는 AI 스피커의 기본 사용법 교육과 함께 네이버 클로바에 연동해 홈 IoT 기기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체험도 제공한다.

레저문화센터에 마련된 체험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군, 5주년 ‘보성몰’ 전 품목 할인

농특산물 최대 30%

보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농특산물쇼핑몰 ‘보성몰’ 오픈 5주년 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별할인 행사는 농·특산물 최대 30% 할인을 비롯하해 신규회원 5000원 적립금 지급, 구매금액의 5% 포인트 적립, 포토 상품 후기 작성 시 1000원 적립금 지급, 매일 출석체크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성몰은 녹차수도 보성에 걸맞은 다양한 차 연관 제품과 청정 득량만의 수산물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다. 녹차미인 보성쌀, 건강에 좋은 흑토마토, 신토불이 잡곡, 장류 및 발효식품 등 890여 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5주년 기념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소비침체를 겪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농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성몰(http://mall.boseong.go.kr)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4월 말 기준 14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매출액(9억 2000만원)을 뛰어넘어 올해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1년간 월 2회 식품 패키지 제공

순천시가 영양 위험요인이 높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2022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6세(72개월)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산정)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식품을 6가지 패키지로 구성하여 최대 12개월간 월 2회 제공한다.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1-749-69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